

한 작가의 속살 더듬는 두권의 책

박완서의 「문학앨범」과 「그 많던 싱아는…」



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다소간 아쉬움을 준다. 만팔 호원숙이 쓴 “연대기”에서는 “많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문학을 숙명처럼 걸머진 형벌이자 자존심으로 믿고 살아온 그녀의 삶”이 모전여전의 문체로 그려져 있다. 이어서 권영민 교수가 쓴 작품론 “박완서와 도덕적 리얼리즘의 성과”는 박완서문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 주제, 즉 분단의 아픔, 중산층의 생활, 여성의 삶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한편 “내 인생 내 문학”에서 작가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진솔하게 서술한다. 자선 대표작 두 편 「그 가을의 사흘 동안」과 「저문 날의 삽화 5」도 실려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자화상을 그리듯이 쓴 명징한 성장 소설”. 그런만큼 이미 발표된 그의 여러 소설 속에서 파편적으로 드러나거나 소설적으로 변용되어 나타난 자전적 요소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재현되어 박완서소설의 ‘모태’를 보여준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무참히 깨져버린 가족의 단란함, 그렇게 되기까지의 잊히고 뒤틀린 “고약한 우연”에 대한 “정당한 복수”로서 주인공이 언젠가 글을 쓸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매듭짓는 이 소설의 말미는 박완서가 왜 소설가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학평론가 홍정선씨는 「해설」에서 “윤동주와 서정주의 ‘자화상’에 비견되는 소설의 자화상”이라 말한다.

웅진출판 / 각 A5신 / 각 240, 302면 / 각 4800, 4500원

한 작가의 속살을 더듬는 일은 매혹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하다. 누드처럼, 한 영혼의 진면목이 보이기도 하지만 비밀스러움이나 신비감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온 ‘박완서에 관한 책’과 ‘박완서의 책’은 무척 “性的”이다. 한 시인의 말을 빌리면, “매혹과 수치가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박완서 문학앨범」은 우선 많은 분량의 사진을 통해 독자들이 그녀의 삶을 “옛보게”하고 있다. 1944년, 수명여고 1학년 때의 옛된 모습에서부터, 1951년 미8군 PX초상화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모습, 결혼을 거쳐 근자에 취한 포우즈까지 무성영화의 흑백필름처럼 수록돼 있다. 흰 치아를 흰하게 드러낸 채 과잉대소하는 모습이 주조를 이루는 그 사진들은 그러나 ‘기념사진’들이어서 ‘달의 어두운 뒷면’도 보

독특한 개성과 매력의 프랑스소설

「신을 향한 발걸음」 「긴 일요일의 약혼식」



재미가 놀라울 만큼 잘 조화된 사랑이야기”이며, 피가로紙에 의하면 “꼼꼼한 구성과 치밀한 계산이 어울어진 추리소설의 표본”이다. 또다른 잡지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시 적군의 참호 앞으로 내던져진 후, 행방불명된 연인을 찾아나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추리 형식의 소설, 1991년에 출간된 소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투명한 소설”이라고 한다.

이 두 소설의 작가에게는 공통점이 많은 편이다. 「신을 향한 발걸음」의 저자 장 보트랭의 본명은 장 에르망.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로베르토 로셀리니 밑에서 조수 겸 자료 정리자로 일하면서 직접 몇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하기도 했다. 영화계의 샅이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던 도중, 자폐증 아이를 얻게 되는 불상사들 계기로 이름을 보트랭으로 고치고 글쓰기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작추리소설로 데뷔했다가 「리플렛의 삶」으로 추리소설가의 딱지를 떼어냈다. 「긴 일요일의 약혼식」의 저자 세바스티앙 자프리조의 본명은 장 밥티스트 로시. 프랑스와 영국의 범죄소설상과 탐정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1984년에는 영화감독상도 탄 것으로 알려진다. 「아두 라미」 「빛속의 방문객」 「밭에서의 토끼사냥」 등의 영화대본을 썼으며 「구월에서 칠월로」 등의 작품을 직접 연출했다는 것.

무르익은 가을에 독서의 즐거움을 주는 한편, 영상매체시대에 있어서의 소설의 한 진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책들일 것이다.

청담사 / A5신 / 각 310면 / 각 4500원
고려원 / A5신 / 352면 / 5000원

「신을 향한 발걸음」은, 로몽드紙에 의하면, “역사소설이자 비극소설이며 詩소설-감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화려한 소설”로서 콩쿠르상 1989년도 수상작. 광활한 수림과 늪지대의 고장인 루이지애나를 배경으로, 어느 프랑스 이주민 일가가 한 거물 은행가를 만나면서 ‘수난 3대’가 되는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이 소설은 프랑스에서 ‘불멸’이나 「푸코의 추」를 능가하는 판매기록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밀림 개척자들의 전형이며 끈덕지고 피바른 농사꾼, 에디우스 미래의 사위인 무법자, 현상수배범을 뒤쫓는 곱추, 뉴올리언스의 쓰레기통에서 태어나 블루스의 상징이 되는 음악가 등, 격정에 사로잡힌 등장인물들이 탄탄한 구성과 박진감 넘치는 호흡으로 그려지고 있다.

「긴 일요일의 약혼식」은, 역시 르몽드에 의하면, “순수소설, 추리소설, 그리고 영화스런

201 칸트의 역사철학

J. 칸트 지음 / 이한구 편역 / 4,500원

역사철학에 관해서 쓴 칸트의 논문 7편을 편역한 것으로, 역사 세계의 본질과 역사의 목적 및 이 목적의 실현 수단 등에 관한 칸트의 변증하는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편역자는 이 고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으로 “칸트와 역사 세계”라는 해제를 첨부해 두고 있다.

202 평화의 어린이들

G. 스타스 지음 / 채운경 옮김 / 3,000원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17권째 책으로, 어른들이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어린이들을 희생시키는 현실 앞에서 어린이들은 힘을 합쳐 안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땅, 평화로움이 깃든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203 법구경: 사진으로 보는 法句經

조현숙 옮김 / 6,000원

우리에게 닥쳐오는 최악의 것과 최악의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으며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친 불자의 말씀, 강렬하고도 생동적인 사진을 곁들인 서정적이고 격언적인 글을 통해 얻게 된다.

204 가치론

J. 헤센 지음 / 진교훈 옮김 / 8,500원

인간의 삶의 의의는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특히 윤리적 선의 가치의 실현에 봉사하는 데 있다. 이 책은 도덕의 본질, 아름다움의 본질, 성스러움의 본질에 대해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중국 조선족 혼인의 실태와 변화

박경휘 지음 「조선민족혼인사연구」



오랫동안 한국사 연구의 전통은 정치사와 사회경제사, 그리고 사상사 등을 통한 한국사의 기초이해와 그 체계화에 그 무게중심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런 연구만으로는 한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다소 허전한 부분이 많아 "일상생활의 역사"와 "지방사"를 재구성하는 일이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최근들어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에서 펴낸 중국 연변대학 박경휘 교수의 「조선민족 혼인사 연구」는 주목을 끈다.

이 책에서는 조선 민족 혼인의 기본적인 구조와 성격을 비롯하여 이혼, 재혼, 근친결혼, 동성불혼, 조혼 등의 단편적인 주제들이 역사 문헌을 토대로 하여 서술되고, 중국 연변의 조선족 혼례 방식이 사회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설명된다.

"단편적인 주제들" 중 첫번째는 '男歸女家'. 남자가 여자집에 장가들어 처가살이를 장기간 하다가 아이를 낳아 그들이 큰 후에 처를 데리고 자기집으로 돌아오는 혼인풍속인데 가부장제적 일부일처제가 확립된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끈질기게 존속해 왔다는 것. 중국의 주자가례가 조선에 도입되면서부터 장기간의 투쟁을 거쳐 남자의 처가 체류기간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변천되다 중국적으로 작금의 '부편 거주혼', 즉 시집살이혼으로 이행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두번째 주제는 조혼. 가부장제적 대가족 제도는 필연코 조혼을 발생케 한다는 세계사적인 보편적 원인 외에 조선의 조혼은 원나라의 공녀정책, 국내 봉건지배층에서의 왕가 간택 등에 의해 장기간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밖에 '혼인의례' '혼인 의식관념' '일부 이처제' '첩제' '재혼' '이혼' '내혼제와 외혼제' 등의 주제들이 역사적으로 고찰되고 있다.

제2편에서는 연변 조선족의 '혼인 실태' '혼인과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제도의 변화' '혼례풍습의 변화'가 다루어진다. 중국에서의 조선민족은 "전통문화를 사회주의적 시대정신으로 계승시켜 가고 있으며, 동방예의지민족답게 혼인태도가 단정하고, 부부생활이 화목하며 사회적 혼인기풍이 비교적 좋다"는 것. 그러나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최근년간에 조선족의 혼인관에도 일정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혼율과 재혼율이 급속히 늘고 추세라고 한다.

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 / A5신 / 252면 / 6000원

사회조사의 오차요인 집중연구

오인환 지음 「사회조사방법론」



우리나라에 사회조사(survey)가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40년이 되었다. 사회조사에서는 조사결과와 실제와의 차이, 즉 오차(error)를 어떻게 하면 보다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표집오차(sampling error)는 무시될 만큼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조사가 한 차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비표집오차(non-sampling error)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한다. "오차요인 집중연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좀더 비표집오차의 문제쪽으로 돌리는 하나의 자극제"라고 이야기된다.

이 책의 본문은 모두 여덟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제3장 "이 책의 구성"을 그대로 베껴자면 다음과 같다.

제1장 : 사회조사에서 비표집오차의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책의 좌표와 지향점을 설명하고, 기존의 조사방법론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비표집오차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제2장 : 조사방법의 차이가 응답에 미치는 비표집오차에 관한 장. 이용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방법인 우편조사 및 전화조사와 관련해, 비표집오차를 야기시키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인 응답률의 문제가 살펴진다. 제3장 : 사회조사의 주된 도구인 언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검토된다. 말이 갖는 함의의 차이, 질문과 응답에 내포된 큐(cue), 질문과 응답의 제시형태 등이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제4장 : 면접자와 응답자 측 요인으로 인해 야기되는 계통제들, 즉 면접자와 응답자의 특성, 조사기관의 특성,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사항의 차이, 응답자의 기억력, 응답자의 응답편향 등이 논의된다. 제5장 : 조사결과와 해석시 일어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이 검토된다. 제6장 : 참값(true value)과 오차의 문제. 개념적으로 가상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논의하고 있다. 제7장은 "비표집오차 발생의 요인별 대응방안"이며 제8장은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조사의 과학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한 제의"이다. 부록으로는 비표집오차에 관한 잠정적 정리모음, 비표집오차와 관련된 문헌목록, 통계분석시의 초보적인 유의사항 등이 수록되었다.

연세대 신방과 교수인 저자의 첫번째 저작이라는 점과 연구서적으로는 드문 판형인 '4×6배판'이라는 점이 '화제적'이다.

남남 / B5 / 396면 / 14000원

民族秘傳 정신수련법

토정 이지함, 매월당 김시습, 다산 정약용 — 그들은 어떤 정신수련을 하였는가? 《단》의 실존 주인공 봉우 권태훈 옹의 구술과 희귀한 문헌자료를 통해 밝혀낸 우리 민족 비전의 정신수련법

《용호비결龍虎秘訣》 《선기수략審機數略》, 《도장道藏》 등 희귀 문헌들의 원문 주해를 통해 원상법(原象法), 시해법(尸解法), 사시산(四時算) 등 수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 겨레의 정신수련법을 최초로 정리 해설한 책. 주문과 부적, 축지법, 둔갑법 등 좌도방(左道方)의 세계도 새롭게 조명된다.

봉우 권태훈 옹 김수 / 정재승 편저 / 6,500원

정신세계사의 신간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 팩스 739-8791
책방 정신세계 / 전화 741-7033(통신판매도 합니다)

히말라야 성자들의 삶과 가르침

超人生活

불멸의 영혼과 육체를 지닌 채 물질세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는 히말라야의 초인들 — 그들이 펼치는 기적과 초월의 불가사의한 세계를 생생히 재현한 놀라운 기록!

인도, 티벳 등 히말라야 일대에 실존하는 초능력자 80여 명의 생활, 그들이 행하는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기적을 3년여에 걸친 현지 탐사를 통해 직접 목격한 한 미국인의 방대한 리포트. 수천년 전부터 인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온 초인들의 단체 성형제단(the Holy Brothers)의 비밀.

베어드 T. 스펠딩 / 정창영 옮김 / 7,000원